

“농업서적의 농약설명 엉터리”

10여전에 없어진 농약을 버젓이 권장 농약이름도 생소한것 많아 誤導우려

우리는 근대농업을 표현할 때 「과학영농」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으며 또 분명 과학적인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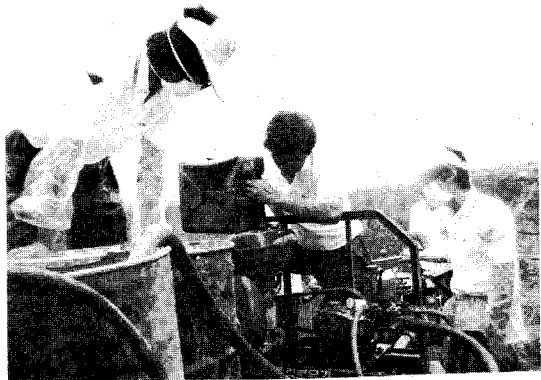
몇년전까지의 농사가 경험에 의해 적당히 지어온 자급형태의 것이었다면 현대의 농업은 과학적인 영농설계를 바탕으로 한 상품생산적인 영농이라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과학영농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기술 서적이 있어야 하며 이런 서적들은 영농의 지침서일 뿐 아니라 소득 증대의 길잡이다.

그런데 과학 영농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많은 농업관계 기술서적이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을 실고 있어 농민

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오도(誤導)할 우려마저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농약의 경우는 정밀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사용방법, 사용시기에 따라 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그 어느 영농자재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과학 영농의



◇ 일부 농업서적에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실고 있어 소득증대의 길잡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근간이 되는 병충해방제에 있어 이미 오래전에 생산, 판매 금지된 농약들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 기술보급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N출판사가 1982년에 펴낸「최신작물 병충해방제」의 경우 PSP 204, 사니파, 다이호루탄, PHC 입제, 테나폰, 카록호스등 이름도 없는 농약이 버젓이 방제법에 기술되어 있다.

또 1981년도에 발간한 「고추, 마늘, 양파재배전서」에 보면 종자소독은 우스폴룬, 메르크롱으로 하면 효과가 좋으며 고추 모잘록병에는 에카틴, 소일신, 시밀틴을 사용하고 마늘 진딧물에는 BHC가 효과적이라고 기술해 놓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에 0출판사가 발행한 「채소 재배전서」의 경우 배추재배시 비산연, 무우재배시 PMA 등을 사용 권장했으며 「마늘, 고추, 양파재배법」에서 DDT를 고추 방제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일보 8.22字).

위에 지적한 농약들은 '69년부터 생산판매가 금지된 농약들이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본적도 없는 농약들이다.

이와같은 책들은 결국 「새마을增産문고」가 아니라 「새마을減産문고」라 해야 앞뒤가 맞을 것 같다.

뿐만아니라 내용도 너무 어려워 「射髓組織에 따라 유막화가 일어난다」는 등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무슨뜻인지 알수 없는 내용도 있다.

또 일부 서적들은 日本것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 전문지식이 없이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든 책도 나돌고 있다.

농업기술서적은 영농의 지침서이고 소득증대의 길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책들은 우리나라 농촌실정에 맞도록 편집이 되어야 하고 특히 농약과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신농약이 등장하고 적용병해충등이 변경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 된다.

더우기 일반농가의 실정과 보편화를 감안해서 이론적인 면, 기술적인 면, 경영측면에 이르기까지 가장 쉬운말로 알아보기 쉽게 기술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책이라면 좀더 성의를 가지고 책을 지은 사람이나 출판사가 다같이 시정해야 될 것이다(崔).